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김인배, 《잠자는 남자》
 KIM Inbai, *A Man Asleep*



김인배, 《잠자는 남자》(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6) 전시전경.

참여작가 : 김인배(b. 1978)
 전시제목 : 《잠자는 남자》
 전시일정 : 2026년 9월 1일(화) – 10월 24일(토)
 전시장소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종로구 율곡로 85) B1F, 1F, 3F, 4F
 전시작품 : 총 29점(조각 21점, 드로잉 7점, 오디오 1점)

[작품 이미지 및 전시전경]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9hBJTzj3RUiqhmktV6xxTAPf5oZtHb3o?usp=drive_link

[문의]

박미란 팀장 E. miran.park@arariogallery.com
 황보영 담당 E. boyoung.hwang@arariogallery.com

자료목차	1. 전시개요	-----	2
	2. 작가노트	-----	2
	3. 전시구성 및 작품소개	-----	3-6
	4. 전시전경	-----	7
	5. 작가소개	-----	8
	6. 작가약력	-----	9-11

1. 전시개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2026년 9월 1일(화)부터 10월 24일(토)까지 **김인배**(b. 1978) 개인전 《**잠자는 남자**》를 개최한다.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의 동시개최에 따라 전 세계 미술계의 이목이 서울에 집중되는 9월 초,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전관을 아울러 대규모로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김인배가 아라리오갤러리에서 12년 만에 선보이는 뜻깊은 개인전이다.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 주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없음’의 감각을 조각의 방법론으로 구현한 신작 조각 및 평면 작품 29여 점을 소개하는 자리다. 김인배는 선과 면이라는 2차원의 요소를 3차원의 공간으로 끌어내거나 해부학적 구조를 과감하게 변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그 경계를 지속적으로 실험해 왔다. 그는 단단한 조형적 외피에 종속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텅 빈 공간을 모각하거나 내부의 원형이 부재한 빈 틀을 주조하는 등 기존의 시지각적 인식 체계를 뒤흔드는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구사한다. 김인배에게 조각이란 고정된 현상이라기보다 시점과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허물어지며,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존재다. 9월 3일(목)에는 삼청나잇 행사의 일환으로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관람객을 맞이한다.

2. 작가노트

조르주 페렉의 자전적 소설 『잠자는 남자(Un homme qui dort)』는 처음부터 끝까지 2인칭으로만 서술된다. ‘너’로 시작되는 문장들은 생각과 마음, 사소한 행동까지 꿰뚫어 보듯 따라간다. 그러나 ‘너’라는 호명은 누군가를 분명히 가리키는 듯하면서도 정작 그 존재를 온전히 포착하지 못한다. 지시하는 말과 그것이 향하는 대상 사이에는 미세한 어긋남이 남고, 소설은 그 간극을 끝까지 유지한다.

이번 전시에서 나는 그 감각을 조각으로 옮겨보고자 한다. 서로 닮아 같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정작 완전히 포개지지 않는 것들. 하나로 여기는 순간에도 그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남는다. 나는 오랫동안 이러한 ‘없음’을 조각의 방법으로 다루어왔고, 이번 신작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없는 것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없음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이 관객에게 논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과 감각을 통해서도 가닿기를 바란다.

—김인배 작가노트 중 발췌

3. 전시구성 및 작품소개

※고화질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제공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 KIM Inbai.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작가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대표 이미지

김인배 개인전 《잠자는 남자》는 조르주 페렉(Georges Perec)의 소설 『잠자는 남자』의 독특한 서술 방식에서 출발한다.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라는 2인칭 대명사로 한 인물을 호명하며 그의 생각과 감정, 사소한 행동까지 꿰뚫어보듯 집요하게 따라가지만 끝내 그 존재를 온전히 포착하지 못한다. 오히려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시할수록, 그 말과 실제 존재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드러난다. 이번 전시에서 김인배가 선보이는 작품들은 대상을 포착하려는 시선과 그 사이 감각의 간극을 조명한다. 지시하는 말과 그것이 향하는 대상 사이의 틈을 입체화하려는 시도다. 그는 서로 닮아 같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결코 완전히 포개어지지 않는 미세한 어긋남에 주목하며, "없는 것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대상을 하나의 형태와 의미로 규정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작은 간극들을 조각의 영역으로 옮겨냄으로써, 김인배는 눈앞에 분명히 드러난 형태보다 오히려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없음'과 그것이 공간 속에서 하나의 감각으로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제작 방법 2〉

2026

상자: 나무, 합판, 스테인, 돈피, 플라스틱 링; 조각: 에폭시 클레이, 유리섬유, 아이소핑크, 우레탄 폼, 나무, 스테인리스 스틸

상자와 다리: 80 x 110 x 234 (h) cm; 조각: 46 x 46 x 108 (h) cm

1층 ■ 층고가 가장 높은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1층 전시장은 조르주 페렉의 소설 특유의 2인칭 서술 방식이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조각적 행위로 치환한다. 소설의 화자는 주인공을 '너'라고 호명하며 그의 사소한 행동과 속마음까지 집요하게 묘사하지만, 정작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는 끝내 좁혀지지 않는다. 김인배는 대상을 규정하려 할수록 역설적으로 멀어지는 이 간극을 다루기 위해 시각이 철저히 차단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물리적인 조각의 과정으로 끌어온다.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자 안에 두 손만 밀어 넣은 채, 오직 감각에 의존해 조각을 빚어내는 상황을 상상하고 이를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전시장에 설치된 거대한 상자는 관람객이 김인배의 이러한 상상적 궤적을 직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단면의 일부를 절개해 두었다.

시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빚어진 덩어리들은 필연적인 어긋남을 동반한다.



〈불이고 누르고 만지고〉

2026

에폭시 클레이, 유리섬유, 아이소핑크, 우레탄 폼, 나무, 스테인리스 스틸

61 x 18 x 99 (h) cm

짓눌리거나 목이 길게 빼뚫어진 토르소, 엉뚱하게 묘사된 곱슬머리 두상 등 보지 않고 빚어낸 형상들은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시각적 기준에서는 명백한 오류다. 하지만 김인배는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어 더듬고, 만지고, 헤맸던 촉각적 흔적이자 조각하는 행위의 과정 그 자체에 주목했다. 공간 곳곳에는 이러한 낯선 감각을 확장하는 작업들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흠을 강하게 쥐었다가 편 순간의 형상을 띤 하얀 조각 <쥐고 펴고>(2026)는 일종의 감각 기관처럼 높은 곳에 자리하며 공간을 내려다본다. 물리적인 거리감과 크기의 차이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조각 <큰 동작1, 2>(2026)과, 시각이 소거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궤적을 형상화한 <움직이는 동안>(2026) 등의 신작도 함께 자리한다.

지하층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지하 전시장에서는 소실점과 원근법 개념을 활용한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공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A형 사다리>(2026)는 선형원근법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차용했다.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A자형 사다리의 실용적 형태가 선형원근법의 투시선 및 소실점과 닮아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김인배는 시각적으로 가장 멀어지는 소실점의 끝부분을 물리적으로 잘려 나간 형태로 제시하며, 결코 닿을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감각의 영역으로 가져왔다. <원근법 만지기>(2026)는 멀리서 보면 깊이감을 지닌 회화 같지만, 이는 입체로 깎아낸 요철 위에 종이를 덮고 문질러 낸 일종의 '프로타주'(탁본)다. 화면 안에는 소실점을 향해 멀어지는 뚜렷한 거리감이 존재하지만, 정작 이 이미지를 얻어내기 위해 바탕판과 종이, 작가의 손끝은 단 1밀리미터의 틈도 없이 완벽히 밀착되어야만 한다. 거리를 두어야만 성립하는 원근법을, 역설적으로 거리를 없애고 만지는 행위로 구현해 낸 것이다.

전시장 한편에 놓인 조각 <빛기둥>(2026)은 선형원근법과 공기원근법의 논리를 동시에 다룬다. 위로 갈수록 좁아지며 비스듬히 솟아오른 다면체의 형태가 선형원근법의 소실점을 향해 모여드는 형태를 띤다면, 그 위에 오일 스틱을 펴 바르고 김인배가 직접 손으로 뭉갠 연기와 같은 겉면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형태가 흐릿해지는 공기원근법의 스푸마토(Sfumato) 기법을 3차원의 실재하는 물질로 치환해 낸 결과다. 에폭시 클레이로 빚어낸 <이중모사>(2026)는 '어긋남'의 감각을 가장



<쥐고 펴고>

2026

에폭시 클레이, 유리섬유, 아이소핑크, 우레탄 폼

12 x 15 x 3 (d) cm



<A형 사다리>

2026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나무, 부직포

83 x 83 x 225 (h) cm



<빛기둥>

2026

오일 스틱, 레진, 유리섬유, 스테인리스 스틸

72 x 32 x 110 (h) cm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김인배는 조각의 겉면 형태를 먼저 잡고 안쪽에 같은 모양으로 선을 그린 후, 자연스레 생긴 무늬를 다시 바깥면에 똑같이 옮겨 구현해냈다. 안과 밖이 서로를 집요하게 모사해 내지만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 구조다. 지하 전시장은 시각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가상의 지점들을 가장 노골적인 만지기의 행위로 끌어당기는 공간이다. 대상을 포개려 애쓰지만 끝내 온전히 닿을 수 없는 조르주 페렉의 소설 속 간극이 김인배의 집요한 조각적 실천을 통해 공간에 구현되는 셈이다.



〈원근법 만지기〉

2026

종이에 콩테

128 x 244 cm



왼쪽부터

〈노란 점선〉

2026

페인트, 레진, 유리섬유,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200 x 15 x 15 (h) cm; 받침: 50 x 120 x 83 (h) cm

〈노란 점선〉

2026

페인트, 레진, 나무

15 x 15 x 1.5 (d) cm

3층 ■ 3층 전시 공간은 도로 위의 점선을 모티프로 삼아 공간의 물리적 경계를 해체하고 가상의 선을 실재화한다. 도로 중앙의 점선은 달리는 차들을 구분하면서도 언제나 넘나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성질을 지닌다. 김인배는 이 개념을 전시장 내부로 끌어왔다. 〈노란 점선〉(2026)의 거칠고 갈라진 표면은 김인배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 완성되었다. 그는 평평한 판에 유토(기름흙)를 붙인 뒤 실제 도로로 나가 노란 차선 위에 얹어놓고 발로 밟아 형태를 캐스팅했다. 짓눌린 유토가 아스팔트의 거친 질감을 탁본 뜨듯 그대로 흡수하여 조각의 거푸집이 되었으며, 그 결과 각각의 표면마다 실제 도로의 날것 같은 물성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었다. 이렇게 빚어진 조각들은 두 개의 스테인리스 기둥에 지탱되어 실제 도로의 차선처럼 일직선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늘어선다. 김인배가 3층 공간을 〈노란 점선〉의 전시 공간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층이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의 4개 층 중 유일하게 공간 내부를 구별하는 가벽 구조를 지녔기 때문이다. 조각의 배열은 이 거대한 물리적 장벽을 완전히 무시한 채, 벽을 관통하여 본래의 일직선 궤적과 등간격을 고집스럽게 유지한다. 일부 노란 덩어리가 벽 너머 공간에 툭 단절되어 붙어 있는 등, 가벽이 지닌 물리적 막힘은 그의 가상적 선 굵기를 통해 무력화된다. 이러한 시각적 장치는 벽면 하단부에서도 이어진다. 김인배는 흰 가벽 아래쪽에 검은색 굵은 선을 둘러 공간의 상하를 강렬하게 분리했다. 검은 선은 공간 전체가 허공에 떠 있는 듯한 착시를 유발하며, 일종의 기준선 역할을 수행한다.



〈같은 그림〉

2026

나무, 합판, 콩테

150 x 40 x 174 (h) cm



〈흙 썰기 조각〉

2026

에폭시 클레이, 유리섬유, 아이소핑크,
우레탄 폼, 와이어, 스테인리스 스틸

23 x 13 x 26 (h) cm

4층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4층 전시 공간은 조르주 페렉의 자전적 소설이 품고 있는 어긋남의 감각을 관계의 층위로 끌어와 실체화한다. 공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화판과 양방향의 헤드폰이 놓인 사운드 설치 및 드로잉 작업 〈같은 그림〉(2026)이 시선을 끈다. 이 작업은 헤드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같은 외모를 지닌 두 남자'가 동일한 이미지를 그려내기 위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레이션에서 출발한다. 겉모습부터 머릿속 이미지까지 완벽한 일치를 전제하고 시작하지만, 이를 고집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며 그림을 그려내려 애쓰는 과정과 그 결과물로 양분되어 펼쳐진 그림은 '같음'을 향한 시도가 역설적으로 간극을 빚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엇갈림의 상황은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검은 〈흙 썰기 조각〉(2026)으로 이어진다. 앞선 〈같은 그림〉에서 나누었던 소통의 과정을 3차원의 조각적 행위로 끌어온 것이다. 함께 흙을 썰어내며 똑같은 형태를 도출하려 애썼음에도 단면의 모양은 차이를 보이지만, 양쪽에서 잘려 나간 단면 사이에 남겨진 이 물리적 두께는 조각의 부피가 되고, 결국 그 궤적은 새로운 3차원의 결과물로 탄생하게 된다. 김인배는 여기서 '같다'는 것의 정의에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형태가 도출되어야만 같은 것인지, 혹은 서로에게 기대어 동시에 몸을 움직였던 과정 자체가 같음을 의미하는지 묻는 것이다. 대상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서로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은 시간의 흔적은, 소설 속 끝내 완벽히 포개지지 않던 화자와 주인공의 관계와도 맞닿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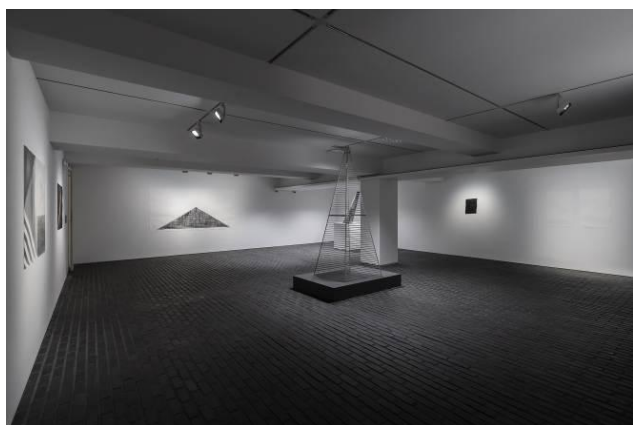
4. 전시전경

※고화질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제공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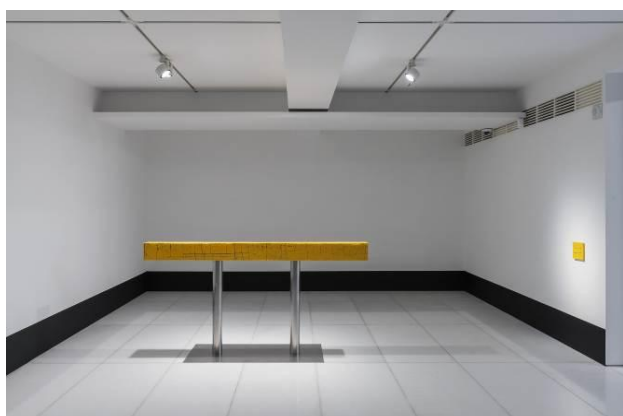
김인배, 《잠자는 남자》(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6) 전시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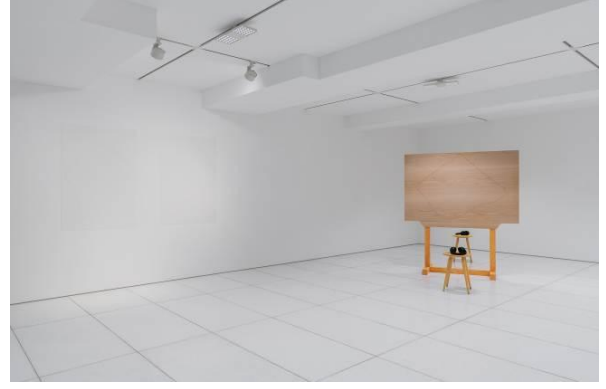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1층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지하층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3층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4층

5. 작가소개



김인배 프로필 이미지

© KIM Inbai.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작가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김인배는 1978 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3 년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2009 년 동 대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서울, 한국, 2026; 2014; 2007), 프라이머리 프랙티스(서울, 한국, 2024), 페리지갤러리(서울, 한국, 2020),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상하이, 중국, 2019),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천안, 한국, 2011), 두산갤러리(뉴욕, 미국, 2010), 갤러리 스케이프(서울, 한국, 2006) 등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송은(서울, 한국, 2026; 2021),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상하이, 중국, 2025),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서울, 한국, 2023; 2021; 2018), 대구미술관(대구, 한국, 2022; 2018), 베른미술관(베른, 스위스, 2021), 두산갤러리(서울, 한국, 2019), 서울시립미술관(서울, 한국, 2019), 소마미술관(서울, 한국, 2016), 성곡미술관(서울, 한국, 20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 한국, 2015), 아라리오뮤지엄 동문모텔 II(제주, 한국, 2015), 아모레퍼시픽미술관(제주, 한국, 2014), 경기도미술관(안산, 한국, 2011), 아트앤디자인미술관(뉴욕, 미국, 2011), 사치갤러리(런던, 영국, 2009)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4 년 제 35 회 김세중청년조각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아라리오컬렉션 외 다수의 기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6. 작가약력

김인배

1978 년 서울 출생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학력

200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석사
200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개인전

2026 잠자는 남자,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2024 없는 것을 보고, 프라이머리 프랙티스, 서울, 한국
2020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페리지갤러리, 서울, 한국
2019 愚者 Child,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 상하이, 중국
2014 점·선·면을 제거하라,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2011 요동치는 정각에 만나요,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2010 요동치는 정각에 만나요, 두산 갤러리, 뉴욕, 미국
2007 진심으로 이동하라,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2006 차원의 경계에 서라,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한국

단체전

2026 송은 x 언박싱 프로젝트: 생성적 형상들, 송은, 서울, 한국
2025 Fluid in Forms 虚实相,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 상하이, 중국
2024 언박싱 프로젝트 3: 마케트, VSF, 로스앤젤레스, 미국
언박싱 프로젝트 3: 마케트, 뉴스프링 프로젝트, 서울, 한국
2023 마니에라, 두산갤러리, 서울, 한국
파노라마, 송은, 서울, 한국
낭만적 아이러니,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2022 각, 하이트컬렉션, 서울, 한국
나를 만나는 계절, 대구미술관, 대구, 한국
2021 제 21 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 서울, 한국
누구의 눈에도 숨겨 놓지 않았지만,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 제 15 회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울산, 한국
비록 춤 일지라도, 코스모 40, 인천, 한국
텍스처 하우스, 피아크, 부산, 한국
숲,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경계 넘기: 지그 컬렉션의 남북한 미술, 베른뮤지엄, 스위스
13 번째 망설임,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 레인 리딩, 두산갤러리, 서울, 한국
- 2019 아마도 멋진 곳이겠지요, 두산갤러리, 서울, 한국
강박²,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2018 무한주, 아라리오갤러리 라이즈 호텔, 서울, 한국
세 번 접었다 펼친 모양, 브레가 아티스트 스페이스, 서울, 한국
쌘지스페이스 1998-2008-2018: 여전히 무서운 아이들, 돈의문 박물관마을, 서울, 한국
기억하거나, 망각하는, 아라리오갤러리 라이즈 호텔, 서울, 한국
수직충동, 수평충동, 대구 미술관, 대구, 한국
- 2017 파이널 판타지, 하이트컬렉션, 서울, 한국
- 2016 APMAP,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신용산 가족공원, 서울, 한국
그 다음 몸_담론, 실천, 재현으로서의 예술,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애니마믹 비엔날레 2015-2016: 스페이스 인 마인드, 상하이현대미술관, 상하이, 한국
- 2015 플라스틱 신화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2 관, 광주, 한국
코리아 투모로우 2015,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목음, 아라리오뮤지엄 동문호텔 II, 제주, 한국
SeMA Collection: 확장된 조각, 충무아트홀 갤러리, 서울, 한국
- 2014 APAPMAP 2014 JEJU, BETWEEN WAVES,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제주, 한국
장면의 재구성,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By Destiny, 아라리오뮤지엄 탐동시네마, 제주, 한국
- 2012 RE-OPENING DOOSAN GALLERY SEOUL, 두산갤러리, 서울, 한국
- 2011 에필로그: 경계에서다,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ARTISTS with ARARIO,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Korean Eye: Energy and Matter, MAD, 뉴욕, 미국
- 2010 ARTISTS with ARARIO,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천안, 한국
- 2009 Korean Eye: Moon Generation, SC 제일은행, 서울, 한국; 사치갤러리, 런던, 영국
- 2008 오래된 미래전,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서울, 한국
- 2007 제 8 회 오픈 스튜디오, 쌘지스페이스, 서울, 한국
- 2006 Wake up Andy Warhol, 갤러리쌘지, 서울, 한국
잘 굿기, 소마 드로잉센터, 서울, 한국
- 2005 프로젝트 '아이', 아트센터나비, 서울, 한국
열, 인사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포트폴리오 2005,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2004 프레파라트_어머니 지구, 갤러리 스케이프; 갤러리 크세쥬, 서울, 한국
SeMA 2004,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레지던시

- 2023 금천예술공장, 서울, 한국
- 2022 창동레지던시, 서울, 한국
- 2017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1 기 입주작가, 서울, 한국

2011 두산레지던시, 두산갤러리, 뉴욕, 미국
2009 ISCP(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 뉴욕, 미국
2006 쌤지 스페이스 스튜디오, 서울, 한국

수상

2024 제 35 회 김세중청년조각상

주요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대구미술관, 한국
부산시립미술관, 한국
아라리오컬렉션, 한국
지그컬렉션, 스위스
쌤지컬렉션, 한국

ARARIO GALLERY SEOUL

KIM Inbai

A Man AsleepInstallation view of KIM Inbai: *A Man Asleep*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6

Artist : KIM Inbai (b. 1978)
Title : *A Man Asleep*
Dates : 1 Sep – 24 Oct 2026
Venue : ARARIO GALLERY SEOUL (85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B1F, 1F, 3F, 4F
Artworks : 29 Artworks in total (21 Sculptures, 7 Drawings, 1 Audio)

[Artwork images and Installation view]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FHSYwn7CX6hdEEETG_aubuiusnfMG0JU?usp=drive_link

[Inquiry]

Miran PARK, Deputy Director | E. miran.park@arariogallery.com
 Boyoung HWANG, Associate | E. boyoung.hwang@arariogallery.com

<u>Table of Content</u>	1. Exhibition Overview	-----	13
	2. Artist Statement	-----	13
	3. Exhibition Layout and Artworks	-----	14-17
	4. Installation view	-----	18
	5. Artist Introduction	-----	18-19
	6. Artist CV	-----	19-21

1. Exhibition Overview

ARARIO GALLERY SEOUL is pleased to present ***A Man Asleep***, a solo exhibition by KIM Inbai (b. 1978), on view **from Tuesday, September 1 to Saturday, October 24, 2026**. Coinciding with Frieze Seoul and K1af in September, a time when the global art world turns its attention to the city, this large-scale presentation spans all floors of the gallery, marking a momentous return for KIM with his first solo exhibition at ARARIO GALLERY SEOUL in 12 years. The exhibition spotlights approximately 29 new sculptures and two-dimensional works that employ a sculptural methodology to address the sensation of 'absence,' a subject the artist has long explored.

KIM has continuously experimented with how we perceive subjects and their boundaries by translating two-dimensional elements of lines and planes into three-dimensional space, or by boldly distorting anatomical structures. Unbound by solid outer forms, he commands a unique visual language that subverts conventional systems of visual perception, such as sculpting invisible empty spaces or casting empty molds devoid of an internal original form. For KIM, sculpture is not a fixed phenomenon but an existence in process, one that is constantly generated, deconstructed, and capable of becoming anything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and environment.

2. Artist Statement

Georges Perec's autobiographical novel *A Man Asleep (Un homme qui dort)* is written entirely in the second person. The sentences beginning with "you" trace every thought, emotion, and trivial action as if seeing right through the subject. However, while the pronoun "you" seems to point clearly to a specific person, it ultimately fails to fully capture their existence. A subtle discrepancy remains between the designating word and its intended subject, and the novel sustains this gap to the very end.

In this exhibition, I attempt to translate this sensation into sculpture. I focus on things that resemble one another and are perceived as identical, yet never perfectly overlap. Even in the moment they are considered one, a subtle difference remains between them. I have long explored this sensation of 'absence' through my sculptural practice, and these new works are an extension of that ongoing endeavor. What does it mean to see what is not there? In what manner does absence exist? I hope these questions reach the audience not merely as logical concepts, but through symbol and sensation.

—Excerpt from KIM Inbai's Artist Note

3. Exhibition Layout and Artworks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opyright credit: ©2026. KIM Inbai.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KIM Inbai's solo exhibition *A Man Asleep* takes its point of departure from the unique narrative style of Georges Perec's novel *A Man Asleep*. From beginning to end, the novel addresses a character using the second-person pronoun "you," obsessively tracing every thought, emotion, and trivial action as if seeing right through them, yet it ultimately fails to fully capture their existence. In fact, the more specifically the subject is designated, the more an unbridgeable gap emerges between the word and the actual existence.

The works KIM presents in this exhibition shed light on the gaze that attempts to capture a subject and the sensory gap that lies within. It is an attempt to materialize the spatial rift between the designating word and its intended subject. Focusing on the subtle discrepancies between things that resemble each other and are perceived as identical yet never perfectly overlap, he poses the fundamental question: "What does it mean to see what is not there?" By bringing into the realm of sculpture the minor gaps that inevitably arise the moment a subject is defined by a single form and meaning, KIM directs his attention beyond the forms clearly revealed before our eyes, focusing instead on the 'absence' existing in between and the manner in which it manifests as a sensation within the space.

First Floor ■ Featuring the highest ceiling at ARARIO GALLERY SEOUL, the first floor exhibition space translates the sense of distance created by the unique second person narrative style of Georges Perec's novel into a sculptural act. The narrator of the novel addresses the protagonist as "you," obsessively describing his trivial actions and inner thoughts, yet the psychological distance to the subject is never bridged. To address this gap, which paradoxically widens the more one attempts to define the subject, KIM establishes a hypothetical situation where vision is completely blocked and brings it into the physical process of sculpting. He imagined a scenario in which he inserts only his two hands into a dark, entirely opaque box, sculpting forms relying solely on his senses, and utilized this as the starting point for his work. The massive box installed in the exhibition space has a section cut away so that visitors can intuitively look into KIM's imaginative trajectory.

The masses sculpted in this sightless state inevitably carry discrepancies. Forms sculpted without sight, such as crushed or elongated and twisted torsos and bizarrely rendered curly haired heads, are obvious errors by the visual standards through which we comprehend the world. However, KIM focuses on the tactile traces of endlessly reaching out, fumbling, touching, and wandering toward an unseen subject, valuing the very process of the sculpting act itself. Organically placed throughout the space are works that expand upon these unfamiliar sensations. Capturing the exact moment clay is tightly squeezed and released, the white sculpture *Gripping and Opening* (2026) overlooks the room from a high vantage point like a sensory organ. Also on view are new works such as *Big Motion 1, 2* (2026), which dramatically reveal physical distance and differences in scale, and *While Moving* (2026), which gives form to the trajectory of the creative process when vision



Method of Modeling 2

2026

Box: Wood, plywood, stain, pigskin, plastic rings; Sculpture: Epoxy clay, fiberglass, XPS foam board, urethane foam, wood, stainless steel

Box and Legs: 80 × 110 × 234 (h) cm;

Sculpture: 46 × 46 × 108 (h) cm



Attaching, Pressing, Touching

2026

Epoxy clay, fiberglass, extruded polystyrene foam, urethane foam, wood, stainless steel

61 × 18 × 99(h) cm



Gripping and Opening

2026

Epoxy clay, fiberglass, XPS foam board, urethane foam

12 × 15 × 3(d) cm

is completely eliminated.

Basement Floor ■ The basement exhibition space at ARARIO GALLERY SEOUL focuses on works that utilize the concepts of vanishing points and perspective. Drawing immediate attention upon entering the space, *A Frame Ladder* (2026) directly appropriates the structure of linear perspective. This stems from the observation that the practical form of an A frame ladder, which narrows toward the top, resembles the orthogonal lines and vanishing point of linear perspective. KIM presents the tip of the vanishing point, the most visually distant spot, as physically severed, thereby bringing an unreachable abstract concept into the realm of concrete sensation. *Touching Perspective* (2026) may appear from afar as a painting with a sense of depth, but it is actually a type of frottage (rubbing) created by placing paper over a carved, three dimensional relief and rubbing it. While a distinct sense of distance receding toward a vanishing point exists within the picture plane, obtaining this image requires the baseboard, the paper, and the artist's fingertips to be completely adhered to one another without even a millimeter of space. He has paradoxically manifested the rules of perspective, which inherently demand distance, through the act of eliminating distance and touching.

Placed on one side of the gallery, the sculpture *Pillar of Light* (2026) deals simultaneously with the logic of linear and aerial perspective. While the shape of the polyhedron, which narrows as it rises diagonally, mimics forms converging toward the vanishing point of linear perspective, its smoky surface, created by KIM manually smudging oil sticks applied over it, is the result of translating the sfumato technique of aerial perspective, where forms blur as distance increases, into three dimensional, tangible matter. Sculpted from epoxy clay, *Double Imitation* (2026) is the work that most intuitively demonstrates the sensation of discrepancy. KIM first shaped the outer surface of the sculpture, drew lines of the same shape on the inside, and then transferred the naturally occurring patterns back onto the outside in exact replication. It is a structure in which the inside and the outside obsessively mimic each other, yet the gap between them never closes. The basement exhibition space is an area that draws the most visually distant virtual points into the most blatant act of touching. The gap found in Georges Perec's novel, where one struggles to overlap subjects that can never fully touch, is thus materialized in the space through KIM's tenacious sculptural practice.



A-Frame Ladder

2026

Aluminum, stainless steel, wood,
nonwoven fabric

83 x 83 x 225(h) cm



Pillar of Light

2026

Oil stick, resin, fiberglass, stainless steel
72 x 32 x 110(h) cm



Touching Perspective

2026

Conté on paper
128 x 244 cm



From the left

Broken Yellow Line

2026

Paint, resin, fiberglass, aluminum, stainless steel
200 x 15 x 15 (h) cm; base: 50 x 120 x 83 (h) cm

Broken Yellow Line

2026

Paint, resin, wood
15 x 15 x 1.5 (d) cm

Third Floor ■ The third floor exhibition space takes the dotted line on a road as its motif to dismantle the physical boundaries of the space and actualize a virtual line. The dotted center line on a road serves to separate moving vehicles while possessing the inherent property of allowing them to cross over at any given moment. KIM brings this concept into the exhibition space. The rough and cracked surface of *Broken Yellow Line* (2026) was completed through KIM's direct and physical actions. He applied oil clay to a flat board, took it out to an actual road, placed it face down over a yellow lane line, and stepped on it to cast the form. The crushed oil clay absorbed the rough texture of the asphalt much like taking a rubbing, serving as a mold for the sculpture. As a result, the raw materiality of the actual road is perfectly encapsulated across each surface. The function of the lane lines, which guide and regulate the movement of vehicles, is thus translated into the properties of a surface that firmly grips the framework of the sculpture and confines its overall form. Supported by two stainless steel pillars, the resulting sculptural components are arrayed at regular intervals along a straight trajectory, much like the lines on an actual road. KIM selected the third floor as the site for *Broken Yellow Line* because it is the only level among the four floors of ARARIO GALLERY SEOUL that features a temporary wall structure dividing the interior. Completely disregarding this massive physical barrier, the arrangement of the sculptures tenaciously maintains its original linear trajectory and equal spacing as it penetrates through the wall. The physical obstruction posed by the temporary wall is neutralized through his virtual line drawing, illustrated by some yellow masses appearing abruptly severed and attached to the space beyond the wall. Such visual devices continue along the lower section of the walls. KIM enveloped the lower perimeter of the white temporary walls with a thick black line, intensely bifurcating the upper and lower portions of the space. This black line induces an optical illusion that makes the entire room appear as if it is floating in midair, functioning as a sort of baseline.



Same Picture

2026

Wood, plywood, conté
150 x 40 x 174(h) cm

Fourth Floor ■ The fourth floor exhibition space at ARARIO GALLERY SEOUL materializes the sensation of discrepancy embedded in Georges Perec's autobiographical novel by bringing it into the relational dimension. Upon entering the space, the viewer's attention is immediately drawn to *Same Picture* (2026), a sound installation and drawing work featuring a drawing board and bidirectional headphones. This work stems from a narration playing through the headphones, in which "two men of identical appearance" converse with each other in an attempt to render the exact same image. Although they begin with the premise of perfect alignment from their outward appearances to the images in their minds, their continuous dialogue and struggle to extract these images, along with the resulting drawings spread out in a bifurcated manner, demonstrate that the pursuit of "sameness" can paradoxically generate a gap.



Clay Cutting Sculpture

2026

Epoxy clay, fiberglass, XPS foam board,
urethane foam, wire, stainless steel
23 x 13 x 26(h) cm

This situation of divergence continues with the black *Clay Cutting Sculpture* (2026), which features handles attached to both ends. It translates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shared in the preceding work, *Same Picture*, into a three dimensional sculptural act. Despite their shared effort to derive the exact same form by slicing the clay together, the resulting outcome is misaligned. However, the physical thickness remaining between the surfaces sliced flat from both sides becomes the volume of the sculpture, and ultimately, this trajectory of divergence is born as a new three dimensional outcome. Here, KIM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regarding the definition of being "the same." He asks whether sameness mandates the derivation of physically identical forms, or if the very process of moving their bodies simultaneously while relying on one another constitutes sameness. The traces of time spent desperately reaching out to one another amid the uncertainty of being unable to fully grasp the other resonate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rrator and the protagonist in the novel, who ultimately never quite came to perfectly overl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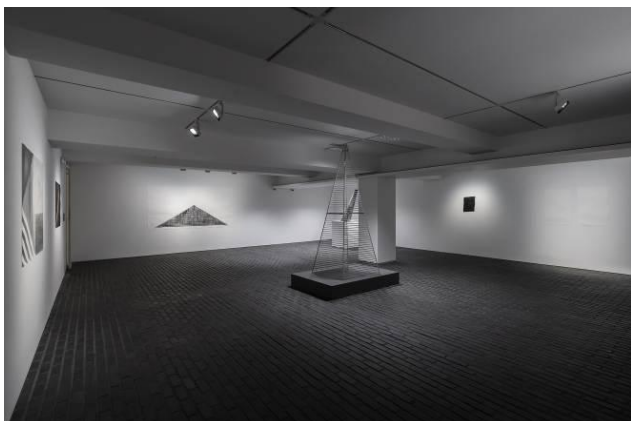
4. Installation view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redit: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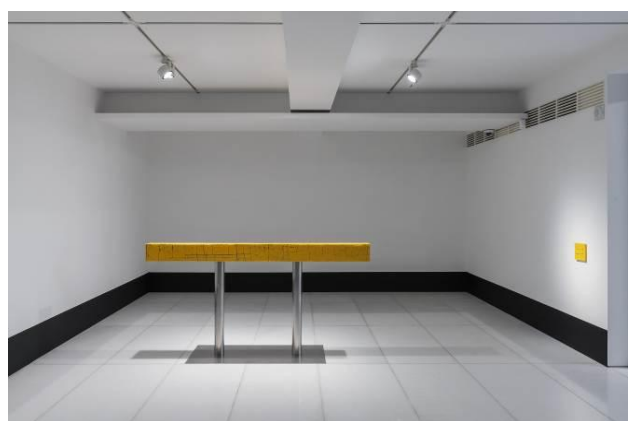
Installation view of *KIM Inbai: A Man Asleep*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6



ARARIO GALLERY SEOUL 1st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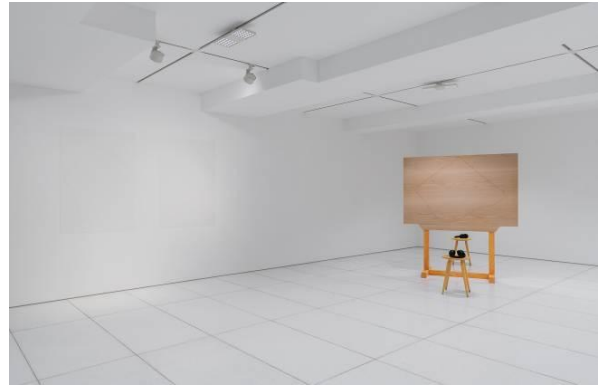


ARARIO GALLERY SEOUL Basement Floor



ARARIO GALLERY SEOUL 3rd Floor





ARARIO GALLERY SEOUL 4th Floor

5. Artist Introduction



KIM Inbai Portrait

© KIM Inbai.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KIM Inbai was born in Seoul, Korea, in 1978. KIM received his BFA in 2003 and MFA in 2009, majoring in sculpture at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6; 2014; 2007), Primary Practice (Seoul, Korea, 2024), Perigee Gallery (Seoul, Korea, 2020), ARARIO GALLERY SHANGHAI (Shanghai, China, 2019),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2011), DOOSAN Gallery (New York, US, 2010) and Gallery Skape (Seoul, Korea, 2006). In addition, he has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 at Songeun (Seoul, Korea, 2026; 2021), ARARIO GALLERY SHANGHAI (Shanghai, China, 2025),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3; 2021; 2018), Daegu Art Museum (Daegu, Korea, 2022; 2018), Bern Kunstmuseum (2021, Bern, Switzerland), DOOSAN Gallery (Seoul, Korea, 2019),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9),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6),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2015),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2015), Arario Museum DONGMUN MOTEL II (Jeju, Korea, 2015), Amore Pacific Museum of Art (Jeju, Korea, 2014),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2011), MAD (NY, US, 2011), Saatchi Gallery (London, UK, 2009) and more. He has been selected for the 35th Kim Se-Choong Youth Sculpture Award in 2024. His works are collected by institutions such as the Seoul Museum of Art (Korea), Busan Museum of Art (Korea), Daegu Art Museum (Korea), ARARIO Collection (Korea) and more.

6. Artist CV

KIM Inbai

Born in 1978,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Education

2003 BFA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2009 MFA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6 *A Man Asleep*,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2024 *Seeing What Is Not There*, Primary Practice, Seoul, Korea
 2020 *Do you remember love*, Perigee Gallery, Seoul, Korea
 2019 *愚者 Child*, ARARIO GALLERY SHANGHAI, Shanghai, China
 2014 *Eliminates Points, Lines and Planes*,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11 *turbulent o'clock*,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2010 *turbulent o'clock*, DOOSAN Gallery, New York, USA
 2007 *Move in Earnes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06 *Stand on the Edge of Dimensions*, Gallery Skape, Seoul, Korea

Selected Group and Special Exhibitions

- 2025 *Fluid in Forms 虚实相*, ARARIO GALLERY SHANGHAI, Shanghai, China
 2024 *UNBOXING PROJECT 3: Maquette*, New Spring Project, LA, USA
UNBOXING PROJECT 3: Maquette, New Spring Project, Seoul, South Korea
 2023 *Maniera*, DOOSAN Gallery, Seoul, Korea
PANORAMA, SONGEUN, Seoul, Korea
Romantic Irony,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2 *Kak*, HITE Collection, Seoul, Korea
A Season of Meditation, Daegu Art Museum, Daegu, Korea
 2021 *The 21st Songeun Art Award*, SONGEUN, Seoul, Korea
Unhidden/Unseeable, Taehwa River Eco Art Festival, Ulsan, Korea
Though We Dance, CoSMo40, Incheon, Korea
Texture House, P.ARK, Busan, Korea
Forê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Border Crossings: North and South Korean Art From the Sigg Collection, Bern Kunstmuseum, Bern, Switzerland
The 13th Hesitation, ARARIO GALLERY, Cheonan, Korea
Rain Reading, Doosan Gallery, Seoul, Korea
 2019 *Our Paradise*, Doosan Gallery, Seoul, Korea
Compulsion to Repeat²,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8 *Endless Column*, ARARIO GALLERY Ryse Hotel, Seoul, Korea
As Two Half Moons Meet, BREGA Artist Space, Seoul, Korea
SSamzie Space 1998-2008-2018: Enfants Terribles, As Ever, Donuimun Museum Village, Seoul, Korea
Remembering, or Forgetting, ARARIO GALLERY Ryse Hotel, Seoul, Korea
VERTICAL IMPULSE, HORIZONTAL IMPULSE, Daegu Art Museum, Daegu, Korea
 2017 *E'cole Baissonnière*, SeMA NANJI Exhibition Hall, Seoul, Korea
Final Fantasy, HITE Collection, Seoul, Korea
 2016 *APMAP 2016 yongsan: make link*, Yongsan Family Park, Amorepacific Museum of Art, Seoul, Korea
Body Matters: art as discourse, performativity, representation,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eoul, Korea
Animamix Biennale 2015 – 2016, Museum of Contemporary Art Shanghai, Shanghai, China
 2015 *Plastic myths*, Asia Culture Center, ACC Creation Space 2, Gwangju, Korea
Korea Tomorrow 2015, Sunggok Art Museum, Seoul, Korea
The Silent Syllable, ARARIO MUSEUM DONGMUN MOTEL II, Jeju, Korea
Expanded Sculpture, Chungmu Gallery, Seoul, Korea
 2014 *APAPMAP 2014 JEJU, BETWEEN WAVES*, Amorepacific Museum of Art, Jeju, Korea
New Scenes,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By Destiny, ARARIO MUSEUM TAPDONG CINEMA, Jeju, Korea
 2012 *RE-OPENING DOOSAN GALLERY SEOUL*, Doosan Gallery, Seoul, Korea
 2011 *Epilogue: On the borde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ARTISTS with ARARIO,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Korean Eye: Energy and Matter, MAD, New York, USA

2010 *ARTISTS with ARARIO*,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2009 *Korean Eye: Moon Generation*, Standard Chartered First Bank, Seoul, Korea; Saatchi Gallery, London, UK

2008 *Ancient Futures*, Nam-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7 *The 8th Ssamzie Open Studio*, Ssamzie Space, Seoul, Korea

2006 *Wake up Andy Warhol*, Gallery Ssamzie, Seoul, Korea

Drawn to Drawing, Soma Drawing Center, Seoul, Korea

2005 *Project 'I'*, Art Center Nabi, Seoul, Korea

Yeol, Insa Art Space, Seoul, Korea

Portfolio 2005,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4 *Preparat_Mother Earth*, Gallery Skape, Gallery Que Sais-je, Seoul, Korea

SeMA 2004,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Selected Residencies

2023 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Korea

2022 MMCA Changdong Residency, Seoul, Korea

2022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Seoul, Korea

2017 11th SeMA NANJI Residency,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1 DOOSAN Residency, DOOSAN Gallery, New York, USA

2009 ISCP(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 New York, USA

2006 Ssamzie Space Studio Program, Seoul, Korea

Awards

2024 35th Kim Se-Choong Youth Sculpture Award

Selected Collections

ARARIO Collection, Korea

Seoul Museum of Art, Korea

Daegu Art Museum, Korea

Busan Museum of Art, Korea

Sigg Collection, Switzerland

SSamzie Collection, South Korea